

송순의 면앙정과 16세기 누정건축에 관한 연구

윤 일 이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

주제어 : 면앙정, 송순, 누정, 조선시대, 사림, 담양, 소쇄원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건축은 시대의 반영이며, 사회의 반영이다.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고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누정건축은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60개로 건립이 활발하지 못했던 반면, 조선 중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553개소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¹⁾. 특히 남부지방에서는避暑와 遊樂, 詩壇, 산수경관의 조망 등을 위하여 산수가 좋은 장소에 단출한 모습으로 누정이 많이 조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남의 담양 원효계곡에서는 16세기 전반에 누정건립의 붐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여 60여개가 넘는 정자가 조성되었다. 물론 남면에 조선 초기 고려조 충신이었던 全新民이 창건한 獨守亭²⁾, 1530년에 창건된 梁山甫의 瀟灑園이 있었지만 이곳이 초기에는 은둔처, 사적인 별서였다고 하면 3년 뒤에 건립된 俛仰亭은 본격적인 詩壇의 장소였다. 정자 면앙정은 문신이자 면앙정가단의 창설자이며 강호가도의 선구자인 俛仰亭 宋純(1493~1582)이 1533년에 창건한 누정으로, 송순을

비롯한 江湖諸賢들이 학문을 논하며 시를 읊던 시가문학의 산실이자 담양 누정의 시원지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남가단의 대표누정인 면앙정의 변천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16세기 누정의 시대적 특성과 호남누정의 지역적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조 누정의 보편성에서 호남누정의 특징 곧 독자성을 발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조선시대 누정은 간소한 형식으로 지어졌지만 선비들이 모여 풍류를 즐기던 장소로서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된 중요한 건축물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누정에 관한 연구는 분포지역과 현황과악에 머물러 누정의 건축사적 의미를 간과해왔다고 하겠다. 누정에 주목할 필요성으로는 첫째, 누정은 일상생활과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 건축주의 세계관이 명료하게 투영되었다. 즉 누정은 주택에서 분과되어 자연에 연결되는 중간자로서 住居觀과 自然觀을 동시에 보여준다. 둘째, 누정은 각 지역에서 존경받고 학문과 덕망을 갖춘 선비들이 조영할 수 있었기에 조영한 사람과 가문의 특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장소였기에 각 지역 후학들의 건축조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셋째, 누정은 아름다운 승경지에 자리 잡아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림, 주변경관까지도 고려한 종합체였다.

1) 천득염, 「누정과 원림」, 한국건축사연구, 발인, 2003, pp.165~190

2) 천득염, 「전남지방의 전통건축」, 김향문화재단, 1990, p.153: 독수정의 창건은 1390년 전후 혹은 전시민의 아들 전인덕에 의해서 되었다고도 하나, 전시민의 은둔처에 연유하여 창건된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누정연구를 통해 시대적·지역적 건축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강호가단의 산실인 면양정을 소재로 한 시가(한시)는 『伉仰集』에만도 41명, 51편 210수에 달하고 그 가운데 국문시가로는 「면양정가」 1편과 단가(시조) 9편이 될 정도이고, 그 밖에 후대와 타 문집에 들어있는 작품은 더욱 많아서, 국문학과 조경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반면, 건축학 분야에서는 면양정 조경과 건축 양식적 측면을 다루었지만 대부분 현존하는 건물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³⁾ 그러나 『면양집』에 드러나듯이 송순 당시 면양정의 모습은 현재와는 차이를 가지며, 시가들도 대부분 송순 당시의 면양정을 배경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16세기 면양정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詩文과 현존하는 건물을 바탕으로 담양지역 누정과 영남지역 누정을 참고하였다. 더불어 면양정의 변천을 통해 호남지역 누정특성의 성립과정을 살펴본다.

2. 송순의 생애와 면양정가단

2.1 송순의 생애와 건축

16세기 호남출신의 대표적 문신인 송순은 한문이 주류를 이루던 때에 국문으로 詩를 제작하여 가사문학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16세기 한국문학사에 불후의 공적을 남겼던 시인이었다. 이러한 송순의 생애시기를 구분하면, 27세까지는 수학과 수기에 전념하며 고향인 담양의 봉산에서 보낸 修學期, 77세까지는 내외관직을 두루 거친 仕宦期, 그 이후 14년 동안은 자연과 벗하고 시문을 창작하며 향리에서 지낸 著作期로 나눌 수 있다.

송순의 집안은 대대로 충청도 신평, 홍주, 연산 등지에서 살았는데 고조 宋希璟(1376~1446)이 전라도 秋成(지금의 담양)으로 이주하여 호남인이 되었다⁴⁾. 송순은 태와 조시옹의 딸인 순창조씨의

사이에서 성종 24년(1493) 담양의 鳳山 上德里(企村)에서 태어났다. 송순은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宋欽, 朴祥, 宋世琳에게서 학문을 익힌다. 박상은 조광조의 제자로, 송순의 학통은 길재-김종직-김광필-조광조-박상-송순으로 이어지는 조선조 사림의 전통학맥을 이어받았다.

27세(중종 14년, 1519)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77세(선조 2년, 1569)의 나이로 관직에서 물러나기까지 몇 번의 파직과 유배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지만 비교적 순탄한 공직생활로 근 50년을 벼슬길과 인연을 맺었다. 그 과정에 32세에 企村西北에 면양정을 지을 땅을 사 두었고, 41세에 金安老가 권세를 잡자 귀향하여 세월불 아래

표 2. 면양정 송순의 생애와 건축
(자료: 행장 재구성)

생애연령	건축
수 1	1493 · 1세:11월 14일 전남 담양 출생
학 ~	1513 · 21세:진사시에 합격
기 27	1519 · 27세:별과 급제, 승무원 권지부정사
	1520 · 28세:예문관, 승정원 등에서 관직
	1524 · 32세:企村西北에 면양정 을 지을 땅을 삼
	1533 · 41세:김안로의 미움을 사 관직에서 물러남, 5년간 고향에 머물면서 면양정 창건
	1538 · 46세:사헌부, 홍문관 등에서 관직
	1540 · 48세:경상도관찰사
	1542 · 50세:전라도관찰사, 호남의 명승지와 정자를 섭렵, 소쇄원 지봉수리(修葺) 를 도움
사 27	
환 ~	1543 · 51세:한성판윤, 광주목사
기 77	1545 · 53세:모친상
	1547 · 55세:동지중추부사, 북경에 다녀옴
	1548 · 56세:개성부유수, 화담에 서경덕을 추모하였고 이듬해 부서에 揚巖亭 을 세움
	1550 · 58세:충청도 서천과 평안도 순천으로 유배
	1552 · 60세:선산도호부사, 면양정 중창
	1562 · 70세:기로소에 들어감
	1568 · 76세:한성부판윤에 제수
저 77	1569 · 77세:의정부 우참찬, 지춘추관사, 致仕歸鄉
작 ~	1572 · 80세:분재기 작성
기 90	1579 · 87세:면양정에서 回榜宴을 치름
	1582 · 90세:2월 초하루 鄉筵에서 생애를 마침
	1597 · 정유재란 때 면양정 소실
	1654 · 후손들이 면양정 재건

3) 면양정의 건축형태를 다룬 김동욱(2000)은 1654년 재건 이후의 형태인 가운데 온돌방을 둔 '中齋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고 하면, 본 연구자는 창건에서 현재 모습까지의 전체적인 변천에 주목한다.

4) 김성기, 「송순의 자연시 연구」, 한국고문연구회, 2000, pp.1~2: 송순의 계는 丘進 - 裔 - 義明 - 謙 - 玄德 - 希璟 - 霽之 - 福川 - 泰 - 純으로 이어진다. 송희경이 호남으로 落南했던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우인 宋龜가 고려의

신하로 조선에 협조하지 않은 불복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데에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가 靈光 三溪로 이주했었고 그 뒤를 형인 희경이 따랐다고 한다.

에 면양정을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50세에 전라도관찰사로 내려와 있을 때는 호남의 명승지와 정자를 두루 둘러보았고 외제 양산보의 소재원 공사를 도왔다고 한다. 유배에서 풀려난 이듬해인 60세에 담양부사 오겸의 도움으로 퇴락한 면양정을 중창하였다.

7세에 신병을 이유로 관직을 은퇴한 그는 9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4년간 온전히 생가와 면양정에 머물며 유유자적하는 가운데 많은 가사를 남겼다. 전원에 한가하게 있으면서도 정력이 쇠퇴하지 않아서 나이 80이 지나도록 바둑을 두고 활을 쏘며 책을 보고 글씨를 쓰는 것이 장년의 때와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87세 때에는 면양정에서 과거급제 60년을 축하하는 回榜宴이 베풀어졌고, 송순이 죽었을 때는 관민이 모두 상복을 입고 수십일 간 고기를 먹지 않고 쌀을 모아 제사를 지내 고서야 평상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으로 보아 덕망이 높은 인물이었다. 무덤은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산덕마을 선산에 모셨고, 龜山書院에 배향되었다.

2.2 담양과 면양정가단

전라도 담양에는 「면양정가」를 남긴 한 기층의 면양정가단을 비롯하여, 「성산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남긴 성산의 식영정가단, 소재원 양산보가 문필을 즐겼던 소재원가단도 있다.

담양에 이렇게 많은 가단이 형성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이 시기에 이미 두터운 호남사람층이 형성된 가운데 송순, 임억령, 정철 등의 특출한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면양정가단을 형성한 인물은 자연스럽게 담양을 구심점으로 한 호남인이 중심이 되었다. 이 가단에 출입하면서 송순과 시교를 맺고 활동했던 인물로 『면양집』에 등재된 인물이 110여명이나 된다. 이들의 사회적 교류의 장은 선경지에 세워진 누정이었다. 면양정에서 북동쪽으로 10리쯤 내려가면 屋山(별파)이 있고, 이 성산에서 송순의 외제인 양산보의 소재원을 비롯해서 석천 임억령의 식영정, 김성원의 서하당, 김윤제의 환벽당이 있어 서로 수시로 왕래하였다.

둘째, 담양의 뛰어난 풍광과 넓은 평야는 혼란한 정국으로 정계에서 물러난 士林들을 모여들게 하였다. 담양은 「면양정30영」, 「소재원48영」,

「식영정20영」에서 읊었듯이 자연풍치가 아름답고 풍월의 흥취를 돋우는데 알맞은 곳이었다. 그리고 이곳의 지리를 보여주는 자료로, 선조5년(1572) 송순이 80세 때 자녀들에게 써준 친필 分財記가 있다⁵⁾. 내용을 보면 8남매의 순서대로 奴婢·田畝·林野·家舍 등을 분재했고, 면양정에 대한 기록도 있다. 분재기를 통해 송순은 토지 이천석(畝 625, 田 119마지기) 노비 160명을 소유한 거부임일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유한 경제 배경이 그의 왕성한 문학과 가단활동을 생산한 하나의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호남지역은 다른 곳보다는 예술성·풍류성이 짙은 곳이었다.⁶⁾ 국문학에서는 송순에서 시작된 詩歌脈은 정철을 거쳐 윤선도까지 이어진다. 회화에서는 윤두서를 비롯해서 허유, 허백련 등이 모두 호남출신들이었다. 현재 전남지방만 하더라도 3백여 개의 樓亭이 남아있고, 또 민중들이 동구 밖 경치 좋은 시원한 곳에 세운 茅亭이 호남지방에만 분포한다. 이것은 樓閣이나 亭子, 詩亭을 짓고서 시를 읊고 노래를 즐기면서 유유자적하였던 호남사람의 풍류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3. 송순의 면양정 조영

3.1 면양정 기지 매입(1524년)

송순이 1523년(중종 18년)에 湖堂讀書를 마치고 藝文館 奉敎로 있을 적에 아버지 孝思堂이 돌아가 시자 무량산(지금의 제월리 뒷산)에 안장하고 묘를 살피며 편안히 여의하도록 風樹堂을 짓고 여묘를 살았다. 이듬해 1524년 32세에 정자 지을 계획을 세워 企村 西北에 면양정의 터를 마을의 농부 郭씨로부터 매입하였다.

甲申始營俛仰亭基于上德里一里許 直企村新居家園西北崖上 先有郭氏 居之夢金魚玉帶之士聯翩其上 果爲公所有而

5) 김일근, 「면양정 송순의 자필분제기의 국어문학적 의의」, 건국어문학 21·22집, 1997, pp.679~693

6) 지춘상, 「남도문화 특집론」,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pp.30~42: 호남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가진 것에 반해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억압받고 피해를 입어왔다는 이윤배반성이 거저가 되어 藝術性, 風流性, 民衆性으로 요약되는 호남문화의 형성하였다.

士大夫多造遊者(권5, 行狀 p.5)

始買俛仰亭基地 在企村新居西北 卽上德里北行 不二三里也.(申甲條)

전설에 의하면 곽씨의 꿈에 金魚玉帶를 두른 선비들이 그 터 위에서 놀고 있었다는데 뒷날 면양정 터가 됐다고 한다.⁷⁾ 대숲 사이 돌층계를 오르면 이르게 되는 넓은 면양정 터는 주변의 경관이 광활하고 오묘함이 뛰어나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연을 벗하고 풍월을 즐기며 유유자적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이후 송순은 제월봉 양자쪽에 새집을 지었는데 이것은 정자와 가깝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이증환은 『택리지』에서 ‘가까운 곳에 소풍할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화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면양정의 창건은 이로부터 9년 이후에 이루어지지만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2 면양정 창건(1533년)

송순은 41세인 1533년(중종 28년)에 金安老의 무리가 정권을 쥐고 어진 선비들을 배척하므로, 일시 노모를 모신다는 이유로 고향에 내려와 은거하면서 면양정을 지었다.

締附煽亂斥賢類無虛日 先生憤然而面折其惡 亦自分必敗就鄉庄創建俛仰亭 卽俛仰宇宙之義 有三言詩 自是優游(年譜 癸巳條)

송순이 면양정을 창축하고 바로 창작한 시조가 전한다.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르면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 지으니 흥취가 호연하네.
풍월을 불러들이고 산천을 끌어들이며
명아주로 지팡이 삼고 한평생을 보내려네.⁸⁾

7) 정익섭, 『호남가단연구-면양정가단과 성산가단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p.15: 면양정 터에는 원래 곽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金魚와 玉帶를 두른 선비들이 이곳에 모여 오락가락하는 꿈을 꾸 그는 자기 아들이 벼슬을 할 것이라 여겨 공부를 시켰지만 뜻대로 되지도 않고 집안마저 가난해졌다. 곽씨는 이곳의 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송순이 그 터를 사 놓았다가 나중에 정자를 지었던 것이다. 뒷날 이곳이 소위 면양정가단을 이루어 허다한 학자, 가객, 시인들의 창작의 산실이자 휴식처가 되었다.

8) 俛有地仰有天 亭其中興浩然.

백리에 뻗친 못산들이 안고 있는 들녘 평평도 하네
시냇가에 초가집이 이제야 다행히 이루어졌네.
이 몸은 창생이 바라는 일에 매여있지 않으니
의당 모래밭의 갈매기와 맹세나 맺으려네.¹⁰⁾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 한 간 지어내니
반간은 청풍이요 반간은 명월이라
강산은 들일데 없으니 돌려 두고 보리라.¹¹⁾

상기의 시조들을 통해 면양정의 입지를 살펴보면, 상덕리 본가에서 1km 정도 떨어진 언덕에 위치한 면양정은 건물명처럼 위로 하늘을 우러러 보고(仰) 아래로 땅을 굽어 볼 수 있는(俛) 곳에 마치 학처럼 자리하였다¹²⁾. 면양정 앞에 제월봉이 솟아 있고 여기서 아스라이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촌 일대와 멀리 동녘으로 담양읍이 한눈에 보인다. 제월천은 옛날에는 제월봉 아래쪽으로 맴돌아 흘렀다고 한다. 면양정 주변의 빼어난 경관은 「면양정 30영」에서 추월산의 푸른 절벽, 몽선산의 푸른 소나무, 용구산의 저녁구름, 불대산의 낙조, 용진산의 기이한 산봉우리, 서석대의 아지랑이, 독바위의 우뚝한 모습 등¹³⁾으로 읊어졌고 항상 시문객들을 끌어들이며 성황을 이루었다.

반면 십년을 경영하여 지은 면양정의 규모는 한칸의 초정으로 단출했으며, 바닥은 마루로 난간을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1칸 규모는 이규보의 『동문선』 사륜정기에 언급한 1평 규모의 정자와 연결되고, 지붕의 초가는 청렴과 안빈낙도의 상징으로서 당시 선비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강산

招風月搥山川 扶藜杖筇百年. 「면양정삼언가」
9) 정익섭, 앞책, p.60: 국문학계에서는 가사문학의 큰 꽃 「면양정가」의 창작연대를 두고 처음 면양정을 지었던 40대설과 77세 이후로 보는 만년제작설로 나누어져 있다.
10) 百里羣山擁野平 臨溪茅屋幸初成. 「면양정」, 司諫罷歸後作
11) 창건시 면양정 규모는 상기의 국문시가 「면양정삼언가」에서는 1칸, 「면양집」 권4 ‘雜著’의 한문시가에서는 ‘經營兮十年 作草堂兮三間 明月兮清風 咸收拾兮時完 惟江山兮無處納散而置之觀之’로 3칸으로 책에 따라 차이가 난다. 국문학계에서는 1칸은 작은 규모를 강조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20년 후 담양부사 오겸에 의해 면양정이 크게 중창되었을 때의 규모가 3칸인 것을 고려하면 초창시에는 1칸 정도의 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12) 너럭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을 탄 청학(면양정)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 「면양정가」
13) 秋月翠壁, 夢仙蒼松, 龍龜晚運, 佛臺落照, 湧珍奇峰, 瑞石清風, 巖巖孤標, …….

은 들일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는 공간의 부족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연을 수용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면양정의 亭額은 聽松 成守琛이 썼다. 초창시 면양정 모습은 이웃한 소쇄원의 한 칸의 초정인 소쇄정과 유사하고, 전라도 전역에 분포하는 茅亭과도 흡사하다.

면양정 창건이 가지는 의미는 첫째, 당시 선비들이 추구한 自然歸依思想과도 연결된다. 송순은 「면양정가」에서 강호를 세속과 대비되는 일종의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코
바람도 허려하고 달도 맞으려코
밤으란 언제 좁고 고기란 언제 넓고
柴扉란 뉘 닫으며 진 곳으란 뉘 쏠려뇨
(중략)
羲皇을 모르더니 이 적이야 괴로우나
신선이 었더턴지 이 몸이야 귀로우나
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上의 李太白이 살아오다
호탕 정회야 이에서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듯도 亦君恩이쌌다.

면양정에서의 강호생활을 자연을 즐기기만도 바쁜 부족함이 없는 세계로, 태평성대였다는 회황상대나 신선의 세계와 동일시하였다. 그에게 강호는 세속과 대비되는 종교적 속성이 갖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강호에 묻혀 영원히 반복 회귀하는 자연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삶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¹⁴⁾

둘째, 俯仰¹⁵⁾이라는 정자명에서 드러나듯이 송순이 평생을 '俯不作仰不愧'하는 생활을 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즉, 창건은 母堂의 봉양도 계기가 되었지만 당시 정계에서 받은 刺戟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치사 후 만년의 계획이 미리 앞당겨 진행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3.3 면양정은 중창(1552년)

14) 김신중,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다지리, 2001, pp.24~25

15) 김성기, 앞책, p.337 : 면양은 그 의미가 송순이 지켜나갈 철학의 일면을 보여준다. 속중 때 沈仲良은 면양은 그 뜻이 伯夷와 柳下惠의 철학에 바탕을 둔 것으로 宇宙之意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16) 정익섭, 앞책, pp.41~42

송순은 고향을 벗어난 외직이 많아 면양정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면양정이 창건된 지 20년이 지난 명종 7년(1552) 담양부사 吳謙이 정자에 올랐다. 오겸은 정자의 곳곳에서 비가 새고 나무가 썩어 내리는 등 초라하고 퇴락해진 모습이 안타까워 도움으로 주어 면양정을 중창하게 하였다. 부사의 조력을 받아 중창된 면양정은 지금까지의 1칸 초정에 비해서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면양정을 증건하고 기대승이 「면양정기」, 임제가 「면양정부」, 임억령, 김인후, 고경명, 박순이 「면양정30영」을 짓는 등 송순과 친분이 있는 당대 명사들이 모여 여러 시문을 지어 축하했다.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시작의 증가로 보아 면양정가단이 활발해진 것도 이때부터라 보여진다.

송순은 대나무 藍輿를 타고 소나무 아래로 가고 오면서 날마다 산늪은이와 물가의 벗으로 더불어 섞여 앉아서 말하고 웃으면서도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을 근심하는 정성은 조금도 해이하지 않아서 시편과 가곡으로 표현하였다.

면양정의 당시 모습을 언급한 네 가지 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1552년 중창된 건물의 특징을 자세히 기술한 기대승의 「면양정기」에서 건물의 형태와 특징을 언급한 부분만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정자는 3칸으로 되었다. 긴 들보를 걸었는데, 들보 길이가 도리의 두 배가 되어서 그 안을 보면 반듯하고 텅 비었으며 단정하고 바르니 그 바르고 단정함이 더욱 드러난다. 사면을 비우고 난간을 둘렀다. 난간 밖은 지형이 조금 낮으며 서북쪽이 급하게 떨어졌다. 대나무를 뺨뺨이 심어 병풍을 두른 듯하고 곧고 긴 나무들이 질푸르고 무성하다. 그 아래 있는 마을을 암계라고 하는데, 주변 언덕에 돌이 많아서 날카롭고 뾰족하여 그런 이름을 얻었다. 동쪽 계단 아래 지세를 따라서 울타리를 두르고 온실 4칸을 지었고 주위를 담장으로 두르고 아름다운 꽃으로 담을 이루었다. 안에는 서책으로 가득 채웠다.”

둘째, 하서 김인후가 「면양정 30영」에서 錦城의 성곽 위에서 草堂에서 글을 읽으며 나라를 생각하는 선비인 송순을 떠올리고 있다

아스라한 성 비단을 둘렀는데
길게 이어져 보일락 말락

담양 면양정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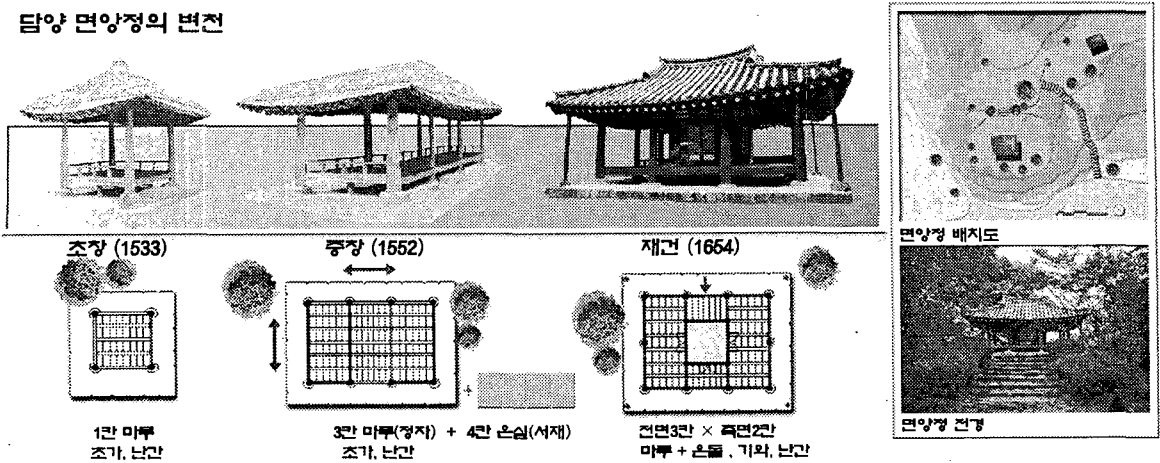


그림 1. 담양 면양정의 변천

하늘과 땅도 만리 눈앞에 들어오니
생각나네 초당에 있는 선비¹⁷⁾

셋째, 송순가 80세(1572)에 직접 작성한 분재기에 면양정에 대한 기록이 있다¹⁸⁾. ‘侑仰亭舍書堂并十餘間, 前後左右竹林松林并入’으로 면양정 문학의 제재이며 동시에 산실이었던 그 공간의 연원이 확인된다.

넷째, 송순이 87세인 1579년에 과거한지 60년이 되어 이를 기념한 回榜宴이 면양정에서 열렸다. 송순의 寬容과 大道¹⁹⁾의 삶은 벗과 제자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선생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들었다. 임금 宣祖는 축하의 꽃과 御酒를 내리고 하객은 도백 宋麟壽를 비롯해서 백여 명이 넘었다. 밤이 되어 송순이 취하여 처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정철이 ‘선생을 위하여 직접 藍輿를 메어드리자’고 제의하였다. 정철, 고경명, 임제가 일시에 가마를 붙들고 옹위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대에 없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다고 한다.

상기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1552년 중창 이후의 면양정 모습을 살펴보면, 면양정은 3칸의 초당이고 들보가 도리의 두 배 정도로 측면 폭이 다른

누정에 비해 긴 편이었다. 실내는 평활 단정하고 텅 비었으며 사방이 트여있고 마루를 깔았고 사면에는 난간을 둘렀다. 또 동쪽 계단 아래로 온실 4칸을 두었는데 주변에 담장을 두르고 풀이 감싸고 있으며 안에는 서책이 가득하다고 하였다. 송순의 분재기(1572)에 ‘侑仰亭舍書堂并十餘間’이란 기록으로 별도의 서당이 있었고 면양정과 서당을 합한 규모가 10여 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면양정과 서당의 구성은 연보의 회방연 기사에서 정철 등이 선생을 가마에 태우고 온실에 모셨다는 기사와도 일치한다.

당시 자연경관을 즐기는 마루로 된 면양정과 잠을 청하거나 서책을 보관하는 온돌로 된 서당이 별도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남지방 농암 이현보의 애일당과 강각, 충재 권벌의 청암정과 충재가 있다²⁰⁾.

3.4 면양정 재건(1654년)과 현재의 건물

송순이 세상을 떠난 지 16년 뒤 정유재란시(1597) 면양정은 화재로 불타 없어졌고, 그 뒤 반세기가 넘도록 빈터로 남는다. 이 정유재란 때 송순과 제현들의 시문이 없어진 것으로 연보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정자는 효종 5년(1654) 곧 송순이 타계한 지 73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지 57년 만에 송순의 후손들이 옛 건물 자리에 정자를 새로 지었다고 한다. 그 뒤로 면양정의 중수나 중창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여러 차례 부분적인 개수

17) 錦城杏齋(금성의 안개)
縹緗城嶺錦 聯錦乍有無
乾坤萬里眼 回憶草堂儒 「면양집 7권, 12」
18) 김일근, 앞책, pp.679~693
19) 송순은 평생 굶어보고 우려러 볼 수 있는 경지인 大道의 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대도의 경지 곧 侑仰의 자세로 사물을 대하며 우주 사이의 삼라만상을 보았다.

20) 윤일이, 「농암 이현보와 16세기 누정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 6, p.85

면앙정과 소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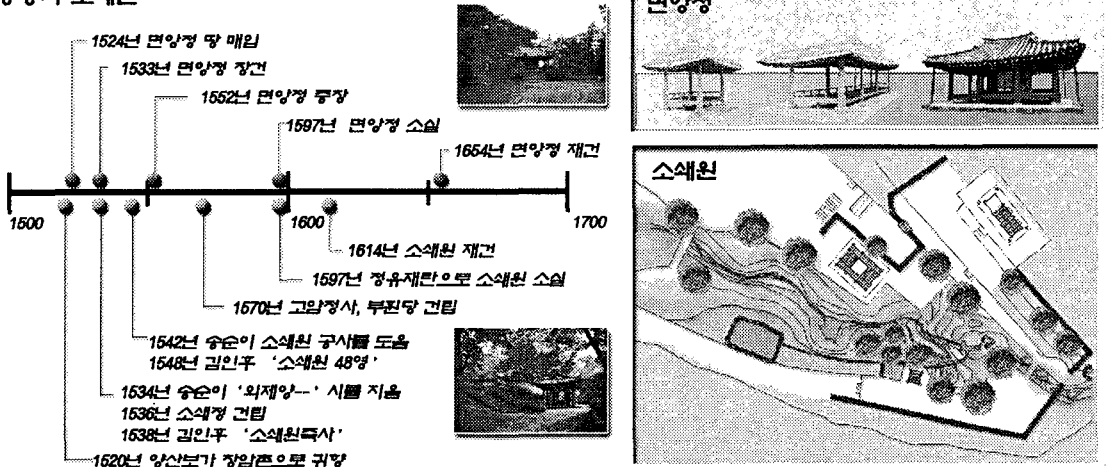


그림 2. 면앙정과 소쇄원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1989년에 기둥과 기와를 갈고 현재의 정자 모습으로 중수가 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7m×4.9m)의 팔작지붕의 기와집이다. 동남향한 건물은 한가운데 한 칸 크기의 온돌방을 두고 사방에 마루가 둘러있고, 처마가 길어 추녀 끝을 4개의 활주가 받치고 있다. 정자의 어느 쪽에서나 주변경관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고 개방적이다. 온돌방은 3면에만 장지문을 달았지만 마루는 사방으로 깔려있어 4면으로 동선이 연결된다. 이런 구성은 담양의 상류계층 주택에서 정지를 제외한 건물 전부분에 퇴를 두른 모습과 닮아있다²¹⁾. 긴 처마는 백제계 석탑의 옥개처럼 산이 낮고 평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자 한가운데 온돌방을 두고 사방에 마루가 있는 평면은 재건 이후 등장하는 변화로 소쇄원 광풍각, 명옥헌, 송강정 등 담양이나 나주 일대를 비롯하여 호남지역 전체에 널리 분포되어 지방색을 띤다.²²⁾

4. 면앙정의 건축특성과 영향

4.1 면앙정의 변천

(1) 면앙정과 소쇄원

면앙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비교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조영된 담양의 대표적 별서인 瀟灑園이 있다. 소쇄원은 3000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에 초정, 광풍각, 제월당 등의 건축물이 기능에 따라 입지, 평면, 형태가 다양하게 조영되어 있다. 「소쇄원사실」을 통해 조성단계를 살펴보면, 소쇄원은 양산보-양자정-양친운의 3대에 걸쳐 조영되었고 여러 인물들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대의 원로였던 송순은 자신의 정자 면앙정을 경영했던 경험으로 1542년 양산보를 위해 소쇄원 공사를 도왔으며(爲外弟梁公山補助築瀟灑園), 김인후 역시 평천장 정원의 경험을 살려 도왔다고 한다. 양산보는 송순과 이종사촌간이며, 김인후와는 사돈 간이었다. 인척으로 맺어진 세 사람은 평생의 동지며 문학적 동반자였다. 이외에도 담양부사를 지냈던 임억령, 인근 환벽당의 주인인 김윤제 등이 수시로 방문하여, 소쇄원에는 양산보 외에 많은 호남문인들의 세계관이 동시에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소쇄원에서 가장 먼저 조영된 건물은 瀟灑亭(초정)이다. 소쇄정은 손님의 대기 장소로 원림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한 한 칸짜리 초정이었다. 소쇄정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1534년

21) 김광연,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1, P.356
 22) 김동욱, 「담양 면앙정의 건축형태」, 건축역사연구, 2000. 12, pp.23~35: 온돌을 중심으로 두고 마루를 사방에 두른 형태는 호남지역 전체에 널리 분포하고, 경상도 서쪽 지리산 인근지역이나 충청도 남쪽까지 확산되어 있다. 그리고 면앙정은 1654년경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았다.

면양정과 애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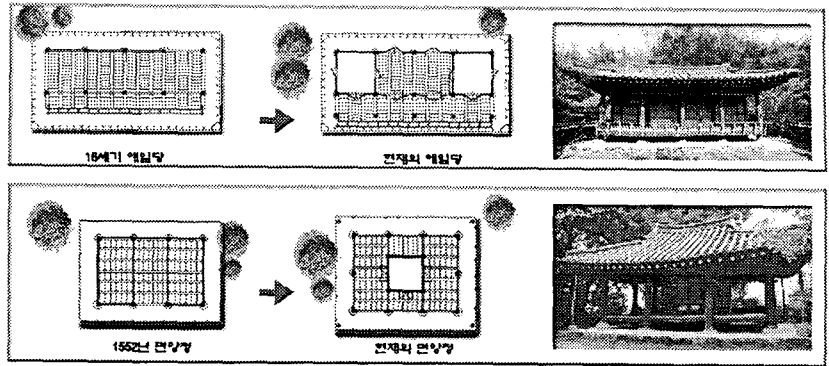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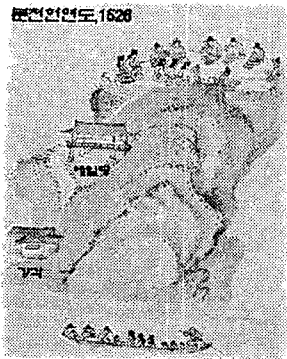


그림 3. 면양정과 애일당

송순의 「外弟梁彦鎮瀟灑亭四首嘉靖甲午」인데, 이후 정철이 「瀟灑園題草亭」에서 자신이 태어난 해인 1536에 건립되었다고 하여 건립시기에 약간 차이를 가진다. 그리고 손님을 위한 공간인 光風閣은 초창기 건물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모르지만 김인후가 「소쇄원 48명」(1548)을 쓰기 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광풍각은 ‘개울가에 누운 글방’이었고, 양천운이 적은 「소쇄원 계당 중수 상량문」에서 대정과 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면양정과 소쇄원은 입지에서 언덕과 계류라는 차이를 가지지만, 건물에서는 1533년 초창시 면양정 모습은 소쇄정과 1654년 재건된 면양정은 광풍각과 유사하다. 소쇄원은 시기별에 따른 건물들이 面的으로 융합되어 있어 면양정의 시기별 변천을 살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겠다.²³⁾

(2) 면양정과 애일당

전라도에서는 송순이 담양의 제월봉 아래 면양정을 짓고 가사를 지어 읊으며 여생을 보냈다고 하면, 경상도에서는 농암 이현보가 안동 부내에 명농당·애일당을 지어 산수를 즐기며 봉친우유하며 시조 「효빈가」 「농암가」 등을 후세에 남겼

다. 이들은 음풍농월·강호영가의 구체적인 성립으로 강호가도를 창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단의 무대인 면양정과 애일당을 조영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 누정은 초창시 비슷한 모습에서 점차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간다.

면양정은 초창시 마루로 된 1칸의 초정에서, 중창시 3칸으로 확장되고 별동의 온실 4칸을 두었다. 송순의 사후에 면양정을 재건하면서 중앙에 온돌방을 두고 사방에 마루를 둔 형태로 변모하는데 이것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누정건축의 특색으로 자리한다. 애일당도 분천현연도(1526)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마루로만 구성된 누정과 방으로 이루어진 丁자형 강각을 두어 책을 보관하였다. 하지만 이후 애일당은 마루를 중심으로 온돌방이 좌우에 부가된 주거성이 높은 형태로 변모하였다²⁴⁾.

즉 1500년대 영호남의 누정은 마루로만 구성된 형태에서 이후 온돌이 도입되면서, 호남지방에서는 온돌을 중심으로 마루가 사면에 둘러진 형태가 나타나고 영남지방에서는 마루가 측면 혹은 중심에 자리한 구성이 선호되었다. 또한 영남에 비해 호남의 누정은 측면 폭이 넓어 4면으로 조망이 가능하여 입지와 정원의 조경에도 차이를 가진다. 이는 누정의 기능이 영남지방에서는 강학기능이 강화되어 서당 및 서원으로 변모한 것과는 달리, 호남지방에서는 시단의 기능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4.2 면양정과 담양의 누정

23) 소쇄원 내에 霽月堂은 주인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제월당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지만 평면형이 영남지방의 누정(도산서당)과 유사하다. 도산서당은 퇴계를 위한 공간으로 농운정사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다른 평면형 취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영·호남 누정에서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관련성을 살펴볼직 하다. 이처럼 소쇄원은 호남지역 누정의 시대별 변천을 품고 있는 보고라고 하겠다.

24) 윤일이, 앞책, pp.8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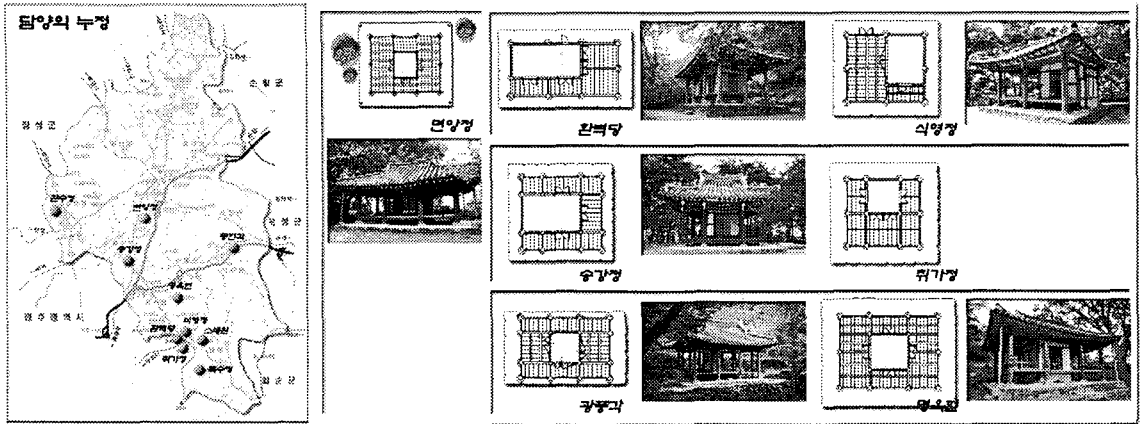


그림 4. 담양의 누정들

16세기 면양정에서 시문의 큰 붐이 일어났다. 송순의 면양정가단의 영향을 받아서 屋山(별퇴)에서 임억령 중심의 식영정가단이 이어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식영정에서 정철의 「성산별곡」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여파는 명가들이 누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단을 형성하여 크게 호남시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담양지역에는 환벽당(1545), 식영정(1560), 송강정(1583) 등이 조영되었다.

송순 시문학에서 창작의 대상은 謗訕과 諷刺, 五倫을 소재로 한 人倫의 문제, 임금에 대한 戀君 등 다양하나 주류는 自然이었다. 즉 면양정은 송순의 퇴휴장소이자 문학창조의 가장 중요한 자연 공간으로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담양 지역의 누정들은 높은 언덕 위에서는 한 마리의 학으로 깊은 계곡에서는 한척의 배로 다양한 무릉도원(이상향)을 구축하였다.

현존하는 면양정의 모습은 담양지역에 분포하는 많은 누정들과 관련성을 가진다. 언덕위에 자리한 것은 송강정, 식영정, 환벽당과 유사하여 주변의 경관을 내려다보고 있다. 평면구성은 방과 마루의 중심성과 방향성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환벽당과 식영정은 2면에 마루를 두었고, 송강정과 취가정은 3면에, 면양정, 광풍각, 명옥헌은 4면에 두었다²⁵⁾. 전체적으로 주변경관을 취하기 위해 개방감이 두드러지지만 방의 뒷면은 개방되지 않았는데 뒤쪽에 부는 찬바람을 막고 난방용

아궁이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양 누정의 다양한 구성은 유교도입에 따른 금욕적 생활규범과 미의식이 누정의 절제된 형식을 낳았다는 획일적인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당시 사대부들의 폭넓은 세계관과 다양한 생활상을 보여준다.

송순과 이현보에 의하여 창도된 강호가도의 전통은 호남·영남 사림의 융성과 발맞추어 정철, 윤선도와 같은 후계자들에 의하여 전성기를 구현하게 된다²⁶⁾. 그리하여 시작의 무대였던 누정은 이후 안동 일원에서는 도산서원을 비롯한 약 30여 개소의 서원이 분포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는 유교문화권이 된 반면, 담양지역에는 송순의 면양정을 중심으로 성산가단의 식영정, 송강정, 환벽당, 명옥헌 등 60여개의 누정들이 조영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가사문화권을 이루는 차별성을 띠게 된다. 또한 별서인 소쇄원은 윤선도의 부용동 원림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16세기 전반에 활동한 송순은 강호가도를 창도하여 국문시가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정철을 비롯한 호남사림들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면양정은 가단의 활동무대로

25) 김봉렬, 「앞과 삶의 공간」, 이상건축, 1999, pp.76~77: 담양의 누정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6)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pp.107~108: 조선전기 시조는 유가의 이념과 규범을 노래하거나 강호자연에서 심성을 함양하며 유한한 삶을 그리는 등 성리학에서 연역된 세계관과 미의식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 국문시가 연찬 및 향유의 중심지이자 강호가도라는 사람의 새로운 문화 창출지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에 반영된 송순의 건축관과 호남지역 누정건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 16세기 사화로 혼란기를 맞이하였던 호남사람은 향리에 머물면서 강호에 누정을 짓는다. 유교적 이념을 좇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은 강호라는 관념적 세계를 구축하였고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에 머물지 않고 도학적 사고를 응축한 무릉도원(이상향)으로 사회교류의 장이 되었다.
2. 초창기의 면양정은 마루로만 이루어진 초정으로 간소하였으나 이후 규모가 확대되고 온돌이 도입되면서 온돌방을 중심으로 마루가 사면을 두른 개방적이고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모하였다. 이 같은 누정의 형태는 풍류를 중시하고 산이 낮고 평야가 많은 호남의 문화적·지역적 특성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3. 16세기 영호남에 조영된 송순의 면양정과 농암의 애일당은 마루로 된 누정과 온돌로 된 책방을 따로 두는 시대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후 건물이 증축·재건되는 과정에서 온돌과 마루가 차별적으로 결합되어 영호남지방의 누정이 지방색을 띠어간다.
4. 담양의 누정은 시단의 기능이 강화되어 온실을 가운데 두고 사방에 마루를 둔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여 입지와 조경에 신경을 쓴 반면, 안동의 누정들은 강학의 기능이 강화되어 온돌방에 마루가 측면 혹은 중앙에 자리 잡아 주거성이 높아지고 서당, 서원과 연결된다.

참고문헌

1. 『면양집』, 고대족문화연구소, 1995
2. 김동욱, 「담양 면양정의 건축형태」, 건축역사연구, 2000. 12
3. 김봉렬, 『앓과 삶 의 공간』, 이상건축, 1999
4. 김성기, 「송순의 자연시 연구」, 한국고문연구회, 2000
5. 김신중,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다지리, 2001
6. 박준규·최한선, 『달관과 관용의 공간 면양정』, 태학사, 2000
7. 윤일이, 「농암 이현보와 16세기 누정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 6
8. 정기호, 김봉원, 이원아, 『소쇄원 긴 담에 걸린 노래』, 태림문화사, 1998
9. 정익섭, 『호남가단연구-면양정가단과 성산가단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10. 천득염, 『한국의 명원 소쇄원』, 발언, 1991

A Study on Song Soon's Myonang-jong 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Nujung of 16th Century

Youn, Lily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 of Architecture)

Abstract

The Honam reg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 poetry. So this study focuses on Song Soon among various factors of Honam architecture in 16th century. He was ahead of his times in develop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made buildings that become background and materials of his literature.

Song Soon built Myonang-jong in Damyang for his life time and tried to design to pull in nature into his buildings. These buildings were built in beautiful landscape, and showed elegance as a retired scholar and Taoism characteristics. He provided basic ideas, that is, pulling in nature into architecture, and metaphysics morality, and his ideas also influenced Honam School including Jung Chul. This study looks into Nujung architecture that had become materials of Myonang-jong Song Soon literature and characteristics of Honam architecture through his buildings at the same time.

Keywords : Myonang-jong, Song Soon, Nujung, Chosun Dynasty, Sarim, Damyang, Soswaewon